



강북구의회  
GANGBUK-GU DISTRICT COUNCIL

# 언론보도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북부신문

## 강북구의회, 본회의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사진)는 10월 5일(화)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12일까지 8일간 제 145회 정례회 회기를 시작하였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추석연휴 동안 쏟아진 폭우 피해 현장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민생현황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낭비 없이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 효율적인 구정 실현에 기여하자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을 가결시켰다.

본회의 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종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종순 위원장은 “훌륭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프리신문

## 휠체어 보행 편의 먼저? 안전이 먼저?

구본승 강북구의원, 휠체어 탄 장애인 '주민 보행환경 개선' 점검

최근 노인인구가 늘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거리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해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정비나 휠체어 안전대책이 허술해 교통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구본승 의원은 지난 달 28일 오후 1시30분 번3동 주공아파트 2단지 옆 벌리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휠체어(전동) 탄 장애인들과 번3동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15여명이 공원입구 횡단보도가 위험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에 구 의원

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장애인들과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동휠체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가 매우 협소한 문제점과 횡단보도에 연결된 휠체어 이동로가 좁고 급경사로 인해 전동휠체어 운전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좁은 인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운전자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동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도블럭을 다시 조정하여 높은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장애인들

의 안전과 주민 보행이 중요하기에 비좁은 횡단보도를 넓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이동로를 만드는 보행환경 개선을 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체장애인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일반도로 여건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가 도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행권을 보장을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보완이 시급한 실

정이다.

좁은 인도와 그 안에 높은 전봇대, 가동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과 서로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차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에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곳에는 좁은 인도 탓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운행 문제점도 발견됐다.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로를 벗어나 인도가 아닌 좁은 도로를 이용한다. 아울러 역주행 하는 전동휠체어도 있어 마주오면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드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먼저 전동휠체어 안전수칙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넘어진 사람은 전동휠체어의 이용 방법을 몰라서 넘어진 것이다”며 “빠른 속도로 와서 턱을 넘으면 어느 누가 알겠지! 100% 넘어진다”고 말해 전동휠체어 안전수칙에 대해 지적했다.

과연 이번 주민의견이 전동휠체어 보행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안전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현장 조사였다.

처음 이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들은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본 기자는 ‘안전

보행이 더 우선이 아닌가’에 대해 묻자, 그들은 “사고예방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구 의원은 무작정 인도를 넓히는 것보다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하는 등의 안전을 우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앞으로의 구 의원의 의견이 구청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구본승 의원은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오는 20~21일 양일 간 번동 주공 2·3·5단지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로 이어지는 번동 일대의 장애인 보행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동휠체어 이용에 대한 교통법규 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전동휠체어에 대한 배려가 시급히 필요하다.

유영일기자